

니클라스 루만은 눈에 띄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의견이 떠오르면 메모를 했다. 한동안 메모를 모으고 책에 감상을 남기거나 주제별로 메모를 모아뒀는데, 이런 메모방법으로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종이 귀퉁이에 번호를 단 뒤 메모한 종이를 모두 한 곳에 모았다. 이후 각각의 아이디어와 메모가 그 맥락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저 메모 더미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자에 메모를 모았다.

루만은 생각이 나거나 혹은 책을 읽을때마다 카드 용지 한쪽에 서지정보를 적고 뒤엔 생각한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그런후 메모들을 보면서 고유한 생각인지, 혹은 직접 창작한 글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따졌다. 그리고 본 메모상자로 옮기면서 빈 종이에 자신의 아이디어, 논평, 생각등을 적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다. 어떤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배제된 내용은 무엇이며 의도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후 메모상자로 옮기면서 다른 종이에 짤막하게 메모했다. 보통 메모를 할 때는 대체로 메모 상자 안에 있는 기존 메모들을 참고했다. 문헌에 대한 메모는 짧았지만, 저서를 집필할 때 최종 원고를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했다. 하나의 메모에 새로운 메모가 곧장 추가되어 길게 이어지는 메모 사슬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메모 상자에서 루만은 그저 옮겨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메모의 글들을 다른 맥락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메모가 추가될 때 메모 상자를 확인하면서 관련성 있는 다른 메모들과 서로 연결 지었다. 또한 링크 번호를 추가하여 전체 체계 어디서나 찾을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색인은 일련의 생각이나 주제의 입구 역할을 하는 메모로, 일종의 링크 모음집 역할을 했다.

대충 방법은 이렇다.

1. 임시 메모 - 머릿속 생각이나 혹은 무얼 읽을때 나중에 생각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 걸 메모한다.
2. 이렇게 모인 메모를 쭉 살펴보면서 생각, 관심사와 어떻게 유의미하게 관련 되는지 생각한다. 메모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3. 각 메모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관련된 메모 뒤에 보관하며 (정하기 어렵다면 그냥 새 메모를 추가한다), 관련된 메모들에 링크 번호를 추가한다. 물론 나중에 반드시 찾을수 있도록 메모를 한다. 물론, 색인에서 연결되거나 혹은 색인 메모(링크 모음집)에도 추가한다.
4. 무엇이 있고, 없는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살펴본다. 더 많은 독서로 자신의 주장에 스스로 의미를 넘으로 이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주장을 바꾸고 발전시킨다. 그냥 자신의 관심이 향하는 곳을 따르고, 가장 많은 통찰을 약속하는 길로 가면 된다. 또한 자신이 가진 메모를 다시 읽고 메모 하면서 아이디어와 주장을 향상시키고 개선한다.
5. 보통 글 처럼 일관적인 글로 자신의 주장을 구축한다. 주장에서 발견된 구멍을 메우거나 주장을 바꿔도 된다.
6. 그런 후 편집하고 교정한다. 그런후에 다음으로 넘어간다.